인간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할 수 있다면 고가 어딨습니까

☞ 19면에서 계속

때문에 우주가 있는 것을 알고, 부처가 있는 것을 알고, 잘된 걸 알고 못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 될 가능성이 100% 있는 고차원적인 인간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파리가 그것을 알고 "내 배 속에 구더기가 들었소." 한다면 그 파리는 자기가 과거에 구더기였기 때문에 자기 배 속에 구더기가 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이겁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전자에 미생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미생물이 바로 내 몸속에 세포를 통해서 회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이차적으로 더 묘한 것은 자기가 저지른 소치로 인해 천차만별로 인연 따라 내 몸속에 들어서 인과로서 솔솔 나오니 살아나가는 데 앞길을 막는 것도 그렇고, 병고가 있는 것도 그렇고, 우환이 있는 것도 그렇고, 안되는 것도 그렇고 잘되는 것도 그렇고, 똑똑한 것도 그렇고 똑똑하지 않은 것도 그렇고, 바로 그 마음들로 인해서 갖가지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즐겁게 해 주는 것도 거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바깥으로 공부해서는 벗어나려야 벗어날 수가 없으니, 거기서 나오는 거 거기다 되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신 죽어 줄 수도 없거니와 대신 자 줄 수도 없고, 대신 아파 줄 수도 없고, 대신 먹어 줄 수도 없고, 대신 똥 눠 줄 수도 없습니다. 대신해 드릴 수 없는 문제가 다섯 가지나 되죠.

여러분한테 어떻게 해야만이 똑똑히 가르쳐 드릴는지 그것이 참 의문입니다. 아는 것은 내 소견이지 여러분 소견도 아니고, 여러분이 각자 안다 모른다 하는 그 점도, 여러분의 소견이지 내 소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의 문제, 이것이 어디서 오느냐는 문제입니다, 어디서 오느냐. 인간으로 와서는 인간 자체에도 끄달리지 말고 벗어나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몸속에 회전하고 돌아다니는, 지금 합일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소임을 맡아 가지고 몸체에 있는 생명체들이 투표를 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악의 쪽에서 삼분의 이가 나왔고 선의 쪽에서 삼분의 일이 나왔다면 전부 악 조건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선의 쪽에서 삼분의 이라면 또 선의 쪽으로 많이 따르죠. 그러니 우리 마음이 선이고 악이고 간에 몽땅 벗어날 수가 있는 그 마음을 가지려면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거기에다 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음의 선장으로 뽑혀 나온 여러분 각자가 첫째, 진짜로 믿으면서 물러서지 말아야 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고집멸도 사제법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 고가 어딨습니까? 만약에 내가 몽땅 공한 거를 알고, 배 속에 들어 있는 생명들도 다 공해서 찰나찰나 돌아가고, 이 세상도 찰나찰나 돌아가고, 우리 지금 24시간 살아나가는 것도 찰나찰나 돌아가고 변화되고 돌아가는 걸 아신다면 고는 없는 것입니다. 찰나찰나 변하는데 어떤 거 될 때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부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생각을 제대로 못 하면 악의 인연으로
팔만 사천 번뇌가 털구멍을 통해서 들락거리고
여러분의 한 생각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루어져 여여하다면
바로 그 털구멍을 통해서 팔만 사천 부처가 들락날락한다.

부처가 왜 없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같이 너무 가깝게 계시기 때문에 부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남들은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는데 왜 사랑이 없다고 하는가? 사랑하기 이전에 바로 내 아픔이요, 내 몸이요, 내 자리요, 바로 나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안 한다 하는 언어가 붙을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여여하게 자비심이라.

여러분은 이 법당에 와서 부처님을 보고 절을 하실 때 어떠한 생각으로 절을 하시는가요? 부처님 형상과 내 형상이 둘이 아니요,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요, 부처님 생명과 내 생명이 둘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컵도 바로 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출현한 겁니다. 저 부처님도 (등 뒤의 부처님을 가리키시며) 이 세상에 부처님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생각으로서의 마음이 없다면 저 부처님을 모실 수도 없죠. 부처님은 너무 가깝게 계시기 때문에 법당에 들어와도 둘이 아니요, 변소에 가도 둘이 아니요, 어딜 가든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그렇게 가깝게 두고 있으며, 위 속눈썹 아래 속눈썹이 한 찰나에 깜짝거리듯이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니게 그렇게 같이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겁니다.

부처님도 삼천 년 전의 부처님만 계시다고 생각지 마시고 삼천 년 전만 아니라 몇천 년 전, 몇만 년 전에도 부처님은 계셨고, 지금도 부처님은 계시고, 미래에도 부처님은 영원히 끝 간 데 없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 있는 한, 생명이 살아 있는 한, 또 생명이 이렇게 푸르르게 생동력 있게 움죽거리는 한, 아마도 그 뜻은 떠나지 않을 겁니다. 말세니 말세가 아니니 운운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우린 영원히 물 흐르듯이, 발 없는 발로 손 없는 손으로 어디 안 닿는 데가 없고 아니 딛는 데가 없이, 내 몸 아닌 게 없이 이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항상 '저이는 만날 한 말 되하고 한 말 되해.' 이러겠지마는 이 뜻을 이론적으로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는 것을, 백 가지 천 가지 아는 거보다 한 가지 실천하고 실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바로 줄 없는 줄, 이 우주간 법계의 법망에 의해서 저 샛별도, 또 저 은하계의 별성도, 저 북두칠성의 인연도, 우리 사성의 별들도, 사생의 뜻도, 사천 세계의 모든 문제들도 우리 마음과 연관성이 있어서 항상 같이 돌아간다는 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거 남이 모른다고 해서 모를 리 없으니, '남 모르게끔 행동해야지.' 이런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생각을 했다면 벌써 우주간 법계로 아니 퍼지는 데가 없기 때문에 모두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한 것에 걸리지 마시고, 모든 생각이 나온 데가 어딘가? 이것만 아신다면 참 다양하게도 천차만별로 인과를 지어서 이 몸을 받고 나와 고생을 하고 고에서 허덕이는 것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외부의 모든 것을 보세요. 우리가 지수화풍의 고향인가 하면 지수화풍이 나이고, 내가 바로 지수화풍의 고향인가 하면, 집인가 하면 집이 바로 이 세상의 바다와 같고, 이 세상 전체가 지수화풍 빼놓고는 그릇이 될 수가 없으니 흙과 물은 어머니와 같고 바람과 태양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이 없이는 한시도 못 살죠. 하다못해 모르는 무정물도, 저 나무들도 공기를 흡수해서 간직해 뒀다가 인간에게 보급하고 인간은 또 그 나무들한테 영양을 보급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서로서로가 살고 있습니다. 상부상조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만 내 몸속에서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때는 '아이구, 병이 들었어.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진 병이 들었을까?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왜 이렇게 가난이 오고 괴로움이 올까?' 하시는데 가지각색으로 오는 그 고통, 외로움, 고독이 어디에서 오는 건지 잘 아셔야 할 겁니다.

수많은 생을 거듭거듭 모습을 바꿔 가면서 진화돼서 여기까지 왔으니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고, 얼마나 아는 게 많겠습니까? 그 모든 체험을 한 장본인이 바로 참 여러분일 겁니다. 그러니 딴 데서 보배를 찾지 말고 내 집 속에 고귀한 보배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찾는 게 아닙니다. 본래부터 있는 것인데 뭘 찾을 게 있습니까, 본래 있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천차만별로 지은 인과로 인해 겪는 화탕지옥이나 무슨 지옥이나 또 업보나 병고 액난,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가 인연 지은 대로 배 속에 다 들어 있으면서 자꾸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원수 갚으러 나왔지, 원수 갚으려고 인연이 됐지 그게 만나지 않았으면 인연이 안 되지. 아, 저쪽에서 따귀를 안 맞았으면 인연이 안 됐고, 따귀를 안 때렸으면 인연도 안 됐죠. 따귀를 한 번 맞고서도 '아! 이것이 나의 수행이요, 또는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구나.'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놨으면 또 인연이 안 될 건데. 때리러 가서 또 때리고 또 맞고, 때리고 맞고 하니까 그것이, 때리는 것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하니깐 그것이 또 인연이 되고 또 뭉치고 또 만나고 하다 보니까 한 치도 속임 없이 여러분 몸뚱이에 같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몸뚱이 속에 수많은 인과를 얻어서 인연에 따라서, 인연의 소치로, 자기의 각본대로, 연예인들이 각본대로 연기를 하듯이 그저 속에 들어 있는 대로, 자기가 한 대로, 거기서 나오는 대로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 탓입니까. 그건 누구의 탓도 아니고 누구를 원망할 것도 아니고 모든 게 자기 탓입니다. 남이 나를 못살게 굴어서 죽였다 할지라도 자기 탓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겁니다. 왜? 오히려 그 사람을 수고를 시켰으니까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 속에 내가 저질러 놓은 그 자체로써 나를 다지기 위한 내 주인공 참부처님 자성신이, 나를 다지기 위해서 둥글게 쳐 주시는 그런 성숙해 가는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사람을 수고만 시켰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앞에 닥쳐오는 그 모두를, 내가 죽어가고 아프고, 병신이 돼 가고 가난한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줄 압니다. 감사하고, 당신은 공했으니까 그저 죽어야 사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살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만이 여러분한테 고라는, 업보라는 그 누명을 벗겨 줄 수 있는가? 여러분이 곧이듣고 자꾸 흔들리고 속고 이러지 마시고, 내가 가고 싶으면 그냥 갈 것이고 어떠한 자갈밭이라도, 어떠한 가시밭이라도, 어떠한 낭떠러지라도 서슴없이 떼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라야 됩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8년 7월 17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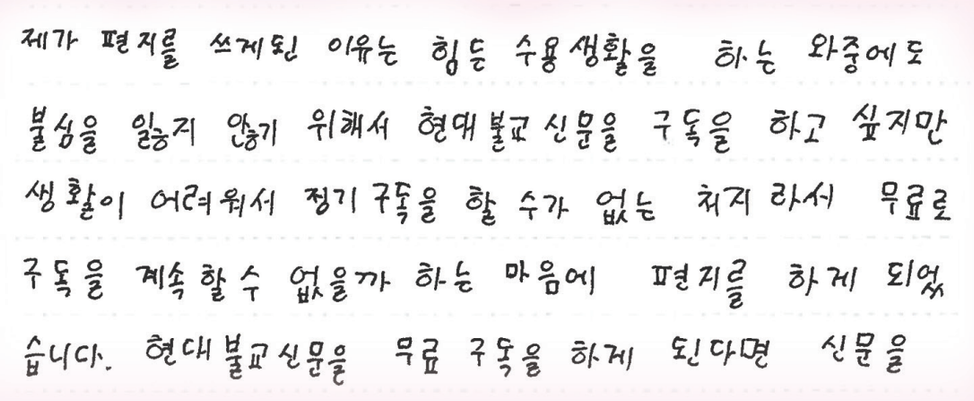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귀하의 매월 1만원으로 어려운 곳의 불자는 매주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제가 편지를 쓰게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현대불교신문 편집장님께

저는 00교도소에 수용중인 수용자 000이라고 합니다. 제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00교도소에서 불자 000 올림.